

“민생이 최우선” 민형배 VS 이낙연...광주 광산을 선택은?

총선 화두는 ‘민생·정권심판’...경기침체 불만 토로 지겹다VS미워도 민주당...민형배·이낙연 표심 갈려 평균나이 39.5세 ‘인물·당론·정책 고려’다양성 추구 ‘먹고살기 바빠요’, ‘기대 안 한다’ 총선 무관심 반응

인물론을 들고 나온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민형배 민주당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광주 광산(비아동·침단1동·침단2동·신가동·신창동·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전국의 관심 선거구로 떠올랐다.

현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반면 인물론이나 민주당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제3지대를 고려하는 시민 등 여론이 출렁이고 있다.

주민 평균 나이 39.5세. 광주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정책이나 당론을 고려해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30일 광산구 침단지구 일대에는 스피커에서 흥겨운 선거송이 울려 퍼졌다.

후보자의 이름을 따 개사한 트로트 선거송이 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거원 10여명은 선거송에 맞춰 율동을 이어갔다. 맞은 편 도로에는 선거원들이 ‘사람이 온다’, ‘큰 인물’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선거 차량에 탄 후보는 주위를 에워싼 시민

들의 눈을 맞추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 다가가 “꼭 좀 경기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나,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유세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생’이었다. 대부분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이었지만 “투표를 하면 살림이 나아지느냐”는 회의감도 공존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의 기준은 어려운 민생을 살릴 수 있느냐였다. 동시에 침체된 경기와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뽑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세 현장을 지나던 류모(64)씨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과값 ‘875원’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나랏일을 하는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몰라도 한 참 모르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현 정권이 침체된 민생에 얼마나 무심한지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이라며 민형배 후보를 지지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인근 카페 사장 한 모(49)씨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국무총리 시절 광주 인공지능(AI) 사업을 도운 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인물”이라고 기대했다.

총선을 앞두고 찾은 광주 광산구 비아5일시장에서 만난 또 다른 상인·시민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주당’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민주당의 대안으로 이 후보를 택할 것인지, 재선에 도전하는 민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는 동상이몽이었다.

두 후보를 두고 신랄한 비판도 교차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떠난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고, 민 후보에 대해서는 ‘꿈수 탈당’ 등 그간의 행보를 둔 지적이 이어졌다.

월계동에 15년 간 산 청년 임모(28·여)씨는 이 후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과 손잡으려다 잘 안 되니까 출마해 민주당 표만 나눠 주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다. “전남도지사 와 서울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갑자기 광산에 출마한다니 광주에 대한 진심이 1도 안 보인다”고 했다.

반면 산월동에 사는 주부 조모(64·여)씨는 민 후보를 두고 “재선 구경할 때 봤던 민 후보의 모습과 비교하면 국회 진출 이후 의정 활동은 실망스럽다. 발언 내용이나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자질이 부족해보인다”면서 “경륜이나 품격으로 볼 때 이 후보가 지역의 요구에 잘 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도시가 위치해 광주에서 가장 젊은 선거



구로 꼽히는 광산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유홍가·식당이 밀집한 침단지구 한 복합쇼핑몰에서 만난 20~40대는 대부분 “투표를 하면 살림이 나아지나오”, “일이 바빠서 (정치)는 글썽”,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 지 모른다”며 총선에 미적지근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투표 시 고려 조건으로는 특정 당보다 당의 가치나 인물론, 인지도를 보고 택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그래서인지 지지하는 당·후보도 다양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원 이모(27)씨는 조심스레 “2직남(국민의힘)할래

요”라고 했다. “시대가 변했다. 부모님 영향을 받아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눈에 띄는 정책도 없고 과거 학연·지연 운동권에만 매몰된 느낌이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식당가를 찾은 수완동 주민 김모(39)씨는 인물을 고려해 진보당 전주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시의원을 지내 광주를 잘 아는 전 후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의당 김용재 후보를 지지하는 옷가게 사장 신모(32·여)씨는 “갈수록 얇은 옷이 많이 팔려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요즘”이라며 “기후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좋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이재명 “여당, 읍소 작전...악어의 눈물에 속아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이 10일 남은 31일 지지자들을 향해 “여당이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여당, 참패할 것 같다는 소리도 다 업살”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다 업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 사람들이 분명 단체로 몰려나와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리면서 큰 절하고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고 하고 한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다.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에 속으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표명 사

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 눈물 흘리며 읍소할 것이다.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부패하거나 이런것까지 나쁜 짓이긴 한데 그렇다쳐도 국민 대놓고 기만 행위 정말 못된 나쁜 짓”이라며 “지금도 분명 시점을 노리고 있을거다.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라고도 말했다.

이어 “과반 차지하거나 1당되는 순간이면 아니라 걸잡을 수 없다”며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 안된다. 절대로”라며 표심을 단속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유나기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806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 선거 공보물 발송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806곳을 확정했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보내고, 거소투표 신고자 5272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는 이유로 선거 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160명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마쳤다. 도 선관위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중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 재산·병역·세금납부와 체납·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이 게재돼 있다.

도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일부 지역에만 선거공보를 제출한 정당을 포함해 정당의 선거공보도 모두 발송했다”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